

만봉스님

신촌 봉원사 주석



가까이서 뵈는 큰스님

자나깨나 '불보살 그림' 만 생각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부용선사 '心行處滅'

처멸(心行處滅)이다.

부용 선사는 조선 성종 16년(1485) 삼천포에서 태어났다. 법명은 영관(靈觀), 법자는 은암(隱庵), 법호는 연선(蓮船). 당호는 부용당(芙蓉堂).

8살 때의 일이다. 하루는 아버지에 게 이끌려 낚시를 갔는데, 선사는 망태 속의 물고기를 모두 놓아주었다. 아버지께서 크게 화를 내자 선사는 엎드려 울면서 말했다. "사람이나 물고기나 목숨의 귀중함은 같고 아픔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루는 괴이하게 생긴 한 스님이 찾아와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는 불가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요, 세속에서는 살 인물이 아니니 출가를 시키십시오"하며 사라졌다.

선사의 나이 13세 되던 해 연산 3년(1497) 가을 어느 날, 선사는 공문(空門)·佛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어 마침내 집을 나서게 되었다.

심행처멸(心行處滅)

空費悠悠憶少林(공비유유억소림) 因循衰髮到如今(인순쇠빈도여금) 毘耶昔一無成(비야석일무성취) 摩竭當年絕響音(마갈당년절향음) 似不能防別意(사능방분별의) 如難必樂非心(여차필어시비심) 故將忘計飛山外(고장망계비산외) 終日忘機對碧岑(종일망기대벽산)

부질없이 소림(중국에 있는 절)만을 생각하다 / 어느덧 구레나룻은 희끗희끗 / 부처님 열반후 불교가 크게 펼쳐진 곳 [비야리(毗耶離)]의 옛날은 소리도 넘세도 없고 / 마가다(摩竭陀)·불멸 후 처음으로 불교가 펼쳐진 곳의 음향은 끊어졌어라 / 말뚝인 양 앉아 있으니 일체분별 사라지고 / 바보처럼 지내라노니 사비심 일지 않네 / 헛된 생각일랑 산문 밖으로 날려 보내고 / 온종일 세사

낙엽 떨어지는 모습 보며 대오

욕망 없애버려 마음 허공처럼

선사는 발길을 재촉하여 수일 만에 덕이산(德義山·지금의 덕유산)으로 들어가, 홀로 토굴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고행 선사를 찾아 가르침을 받은 지 3년 만에 승려가 되었다. 17세 되던 해 신종법사를 찾아 교학을 탐구했으며, 다시 위봉선사 회상에서 선의 요체를 참구했다. 그 뒤 선사는 덕유산 구천동으로 들어가 손수 토굴을 지었으며, 선당의 이름도 부용당(芙蓉堂)·몸은 비록 이 세상에 머물지만 생각은 늘 서방정토에 있으므로 그것을 상징하는 연꽃을 의미해서 지었다.

9년 동안 두문불출한 채 응맹정진하였으나, 일체 놓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참행(參行) 하였으며 와불선(臥不禪)을 확립하였다. 9년의 장좌불와를 마치고는 다시 미륵봉 내원암으로 들어가 출입을 끊고 9년 동안 묵언 불와(默言不臥)로 생사불수행(生死不修行) 하였다. 중종 25년(1530) 가을 어느 날, 선사에서 무심코 선심 창문을 바라보다 낙엽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확연대오하였다. 선사의 깨침은 심행

世事를 잊고 푸른 산만 마주한다.

선사의 계승에서 말해주듯이 깨침은 심행처멸이다. 사람 개개인 가지고 있는 심성에는 명상(名相)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버려야만 자신의 뜻을 실현에 옮기고 구기심(求其心)을 달기(達其心)할 수 있으며, 삶도 죽음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심멸선(心滅禪)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선사께서는 "명(名)의 자신(自心)에 얽매어 들끓는 욕망(佛海慾)·우주를 집어삼킬 정도의 욕심을 없애 버려서 마음이 허공처럼 되어야, 깨침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으며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하였다. 또한 선사께서는 다 겁생으로 이어져 전개되는 영원불멸한 생명의 원천에 한점의 티끌이라도 있으면 수습의 겁을 지나도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더욱이 깨침을 얻을 수 없다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침이라는 행위를 통해 확연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선조 4년(1571) 4월 14일 연곡(巖谷)의 서편산 록에 주석(住石)이 되어 오늘날까지 청풍납자들의 혜안이 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 신촌 안산 중턱에는 불교 문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봉원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 봉원사 주변 사하촌에는 불교전통 법파와 불화의 전통을 오늘에 잇고 있는 태고종 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다.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붓을 놓지 않고, 불화그리기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스님도 바로 이곳에 계신다. 평생을 화려하고 장중한 불보살의 세계를 그려온 스님은 전통 불화(佛畵)의 역사와 정신을 올바르게 이어온, 이 시대의 대표적 불화(佛畵)다.

갓 시작될 장마로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잠시 주춤했던 6월 26일 오전 스님의 화실을 찾았다. 봉원사 입구에서 오른쪽 언덕으로 조금 올라간 곳에 위치한 만봉불화전 시관. 그곳에서 스님은 자신의 작품 활동과 제자 양성을 함께 하신다.

마침 스님은 탕화 한점을 놓고, 마루에 앉아 어느 비구니 스님께 설명을 하는 중이었는데, 귀찮은 기색 없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조금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려 처음 뵈는 스님께 건강부터 여쭙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 수년 전에 다리가 부러져 고생을 했는데, 치료는 다 받았지만 부러진 다리를 쇠덩이로 이어 놔서 다니는데 자유롭지가 못해. 누가 부축을 해주어야 다니지. 그래서 화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

"가끔 답답하기도 하시죠?"
"답답할 거 뭐 있어. 공기도 좋지, 뼈구기가 안우나. 영무새가 안우나 여기가 바로 극락이라. 허허허"

스님의 하루일과는 아침 6시에 시작된다. 6시에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수하고,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다 때가 되면 공양하고, 그림 그리고, 제자들 지도하고, 또 그림 그리고...

밤 9시가 되어서 제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야 하루가 마무리된다.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반복되는 삶이 지루할 것 같지만 스님에게는 그림 그리고 가르치고 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공부고, 즐거움이다.

8살 때 은사인 봉원사 예운스님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아무런 망념없이, 그저 그림과 부처님, 부처님과 그림을 화두로 수행을 이어왔다.

예운스님 밑에서 10년간 수련 끝에 금이 가 된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조성

해왔다. 금강산 표훈사, 유점사, 사연불을 비롯해 공주 마곡사, 서울 도선사, 봉원사, 봉은사, 백련사, 법륜사와 경기도 화암사, 승주 선암사, 안동 봉정사, 베트남 평화사 등 많은 사찰의 불화와 단청을 장엄했다.

평생을 하루도 걸르지 않고 붓을 잡은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려왔으니 그 수는 스님 자신조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 가운데 대표작을 묻는 질문에 스님은 웃음만 지으셨다.

"매 순간마다 부처님 마음을 따라 그 마음 그대로 조성하고자 했던 불화들이라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보여. 잘된것, 못된것, 대표작이니 뭐니해서 구분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분별심과 탐심이 남아 있다는 증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상존해 있는 부처님을 이 부처님 저 부처님 하며 순위

불화 전통 잇는 佛母

그림 그리고 가르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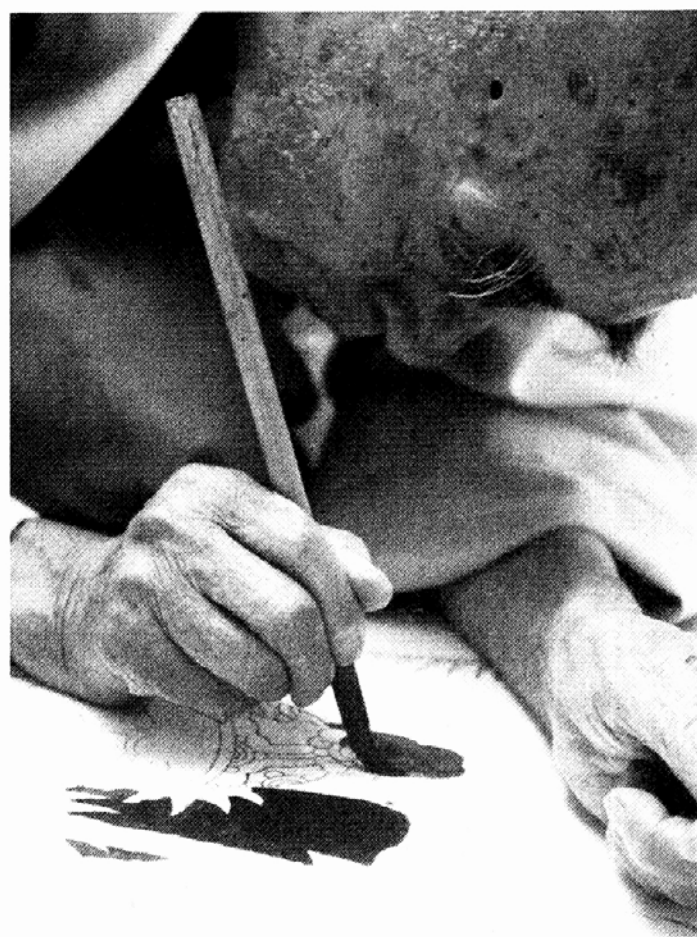
92세 불구 활동 여전

삶 자체가 그림수행

를 정할 수 없었어 전국 사찰에 봉안할 수 많은 불화가 제각각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분별심을 내서 내 스스로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 할 수 있겠소."

하지만 불보살과 단청을 그리는 과정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좌(正坐)로 부처님 앞에 마주 앉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바른 자세로 같은 그림을 몇 천장씩 그려내야 하는 것은 고행중에서도 상고행에 속한다.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불화 그리기에 전심전력하는 스님의 모습은 그 자체가 살아 있는 법문이다.

"무슨 일이나 다 그렇지만 단청과 불화는 신심이 밑바탕이 된 정성이 제일이야. 수십 수백년동안 사찰을 장엄하는 단청과 불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경배하는 성스



◇만봉스님은 오직 그림과 부처님, 부처님과 그림을 화두로 수행해왔다.

러운 대상인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불조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 옛 불화나 단청을 보면 빛은 바랬어도 얼마전에 그린듯 생생한 기(氣)가 느껴져. 그만큼 지극한 신심으로 조성한 것으로 그런 불화는 한없이 바라봐도 그저 환희심만 날 뿐이지."

불화에 처음 입문한 사람은 수행자의 초발심 같은 끝없는 인내와 수행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구도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선 곳기 부터 시작해 불화를 배우는 기초과정을 제대로 습득하는데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니 웬만한 인내력 없이 불화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불화를 스님은 80여년이 훨씬 넘도록 그리고 또 그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스님, 그림 그리는 것 말고 따로 하시는

것 없으세요? 뭐, 책을 보신단거가 그러거요." 스님께 다시 여쭙었다.

"없어요. 그냥 그림만 그려, 다른 건 뭐." 스님은 무심히 답을 하신다.

스님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 중간에 제자들이 오가는 것도 챙기고, 작업에 대해 이것 저것 지시하면서 그 순간조차도 그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만봉스님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한 절에 모셔질 신중탱화의 초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직접 초를 손보기 위해 약상자같이 생긴 강통상자에서 목탄을 꺼내 나무꽃이에 끼우고, 탕화 뒷부분의 구름을 천천히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다.

9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낙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뒤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향된 행복을 위하여 행한 것을 풀고, 온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실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띄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 <구성>
- I 업장과 참회
- II 기꺼운 이물 향한 참회
- III 참을 통한 참회
- IV 참회법
-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 VI 이참법과 대승유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태달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축원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